

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 ▶ <http://www.iwate-ia.or.jp/>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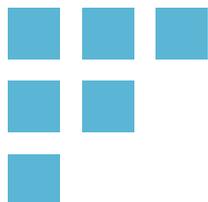
財団法人 岩手県国際交流協会



2010 いわて国際交流

2010 이와테 국제교류

Vol.69



특집 :

▶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20주년



한국어

특집1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올림픽, 월드컵에서부터 아마추어 동네 야구까지, 스포츠는 나라와 언어를 넘는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를 통한 해외와의 교류를 돈독히 맺고 있는 단체와, 현내에서 외국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클럽팀 등,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특집입니다.



이와테에서 직접 세계로

2009년 여름 코우시엔대회에서 이와테현 90년만에 4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한 하나마키히가시고교 야구부. 몇번이나 역전극을 펼쳐 이와테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야구부를 인솔한 사사키 히로시 감독으로부터 장래 이와테팀과 특별한 팀 만들기, 세계로 가기 위한 일본 야구의 전망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현내 선수만으로 일본 최고에

하나마키히가시고교 야구부의 감독에 취임했을 때, 일본 최고의 팀이 되어서 전국 우승을 목표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와테 선수만으로 반드시 우승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고교의 야구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이와테 선수들은 코우시엔에 출전해도 첫번째 시합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가 많았습니다. 이와테사람은 인심, 온화함, 겸손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휩쓸려 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만이라도 뭔가 좋은 의미에서의 「고집」을 발휘하고 있으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고교야구의 지도자로서 프로야구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단지 이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만들기도 중요합니다. 최근 사회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자도 많고 살인 사건도 늘고 있으며

따돌림과 등교거부등 끝이 없습니다. 야구에 한하지 않고 스포츠에 힘쓰는 것이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할수 있는 훌륭한 인간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가질 것, 참을 것,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것등입니다. 야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구 지도뿐만 아니라 교육면의 지도도 필요합니다. 야구에서도 교육에서도 지도자는 프로가 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야구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구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야구만 할 줄 아는 로봇트를 생산하기 위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미니 인터뷰

미국에서 느낀 것

2009년 일미친선 야구대회에 첫 출전한 하나마키히가시고교 야구부의 카시와바 야스타카군과 사루카와 타쿠로우군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카시와바군

(모리오카시 출신. 2루수. 메이지대학 진학)

기술면 이외에 인간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이내믹한 야구를 체감했습니다. 방망이는 실컷 휘두르고 왔습니다. 시합에서는 일본다운 야구를 보여줬고 뜻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사의 양과 고기요리가 많은 점, 몸집의 크기가 다른 점도 놀라웠습니다. 몸 만들기에 몰두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대학에서는 확실히 기본을 익히고 다시 미국에서 플레이 하고 싶습니다.

▽사루카와군

(모리오카시 출신. 3루수. 토우카이대학 진학)

단념하지 않는 것, 노력하는 것,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도 일본과 같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향상심이 열렬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에서 야구를 열심히 해서 일미대학 야구대표에 선발되어 다시 바다 건너편에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통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목표설정의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할까를 생각해서 동기만들기를 중시했습니다. 야구에서의 목표설정 그리고 인생에서의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미 친선 야구에 출전해서

미국 체재중, 매일매일 이와테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랐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코우시엔에서의 활약을 봤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의 환대는 기뻐했습니다. 어느 현의 사람들보다도 이와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주었습니다.

미국의 야구는 파워가 달랐습니다. 던지는 공의 스피드가 전혀 달랐습니다. 친 공의 비거리도 달랐습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한 사이즈 다르고 파워의 차이를 통감했습니다. 다만 일본 야구쪽이 기술력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스피드에서는 당해낼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통용하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피하는 능력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기술의 높이입니다.

코칭도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미국 코칭의 특징은 너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타이밍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가르치기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양쪽의 좋은 점을 살린 코칭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와테에서 세계로 활약한다

모든일을 일본의 섬안에서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과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비즈니스도 세계를 무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츠이, 이치로는 세계 레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야구 레벨은 확실히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레벨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점점 세계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늘어날것입니다. 해외로부터 일본에 와서 플레이하는 선수도 늘고 있습니다. 선수의 왕래가 빈번해 졌고 메이저리그에 더욱 가기 쉬운 시대가 될것입니다. 이제는 벌써 눈 앞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와테 투수를 메이저리그가 진지하게 데려가고 싶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프로야구가 아니라 직접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케이스도 나올것입니다. 전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키쿠치 유세이선수에게 메이저리그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는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와테에서 일본과 이와테의 좋은점과 자랑을 잊지말고 세계로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키쿠치 유세이군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모리오카시 출신. 투수. 세이부 라이온즈 입단. 등번호 17)

해외에서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은 고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강하게 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선수가 늘고, 활약을 텔레비전등에서 관전하며 동경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꿈을 가지고 야구를 계속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단념하지 않는다. 꿈을 단념하는 것은 자기자신. 이제부터 젊은 이와테사람은 꿈을 가지고 세계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 이와테인으로써의 자랑을 가지고, 스스로 젊은 이와테인에게 동경되어지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마키히가시고교 야구부 감독

사사키 히로시

키타카미시 출신. 쿠로사와지리키타고교, 코쿠시칸대학 졸업. 요코하마 하야토고교 코치등을 경험한 후 01년부터 현직. 09년 봄 선발에서는 현대표로서 처음으로 준우승. 같은해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일미 친선 야구대회에 일본 대표코치로 참가. 34세.



배트가 열리는 나무에 꿈을 심고

현영야구장에서 아오다모 기념식수 © 포토 스튜디오 나츄라

시와쵸에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하라 오사무씨는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야구 배트의 재료인 아오다모의 재배 활동을 혼자서 9년간 몰두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오스트레일리아 거주의 테니 마루야마 (마루야마 츠타에) 씨 (모리오카시 네다모 출신) 와 교류가 시작되어 마루야마씨의 요청으로 호주 야구팀이 현을 방문하는 등 「아오다모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오다모 모임」의 탄생

하라 오사무씨는 사비로 빌린 토지에 모종 심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 지금까지 심어진 아오다모는 실제 1만 5천그루에 달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비롯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배트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70년 정도로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활동입니다.

하라씨의 충실한 식림 활동을 우연히 신문에서 알게 된 사람이 테니 마루야마(마루야마 츠타에)씨입니다. 마루야마씨는 20대 중반에 오스트레일리아로 간 후 실업가로서 성공하게 되어 야구 진흥을 위해서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30년에 걸친 야구 진흥의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트레일리아 야구 연맹의 「베이스볼 오스트레일리아 다이아몬드 어워드」의 가장 권위가 있는 회장상을 일본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야구를 통한 국제 교류”를 실시하는 마루야마씨는 하라씨의 삶이나 활동에 감동하여 일본 방문 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라씨를 응원해 식림 활동을 넓히려는 현 내의 야구 관계자가 모여 “이와테 아오다모를 재배하는 모임”(하라 오사무 회장)을 작년 봄에 설립하여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테와의 교류 평가

2009년 5월, 마루야마씨가 고문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야구 클럽 선발의 오스트레일리안 프로버설팀을 일본으로 인솔하여, 이와테를 시작으로 약 1개월간, 니가타, 군마 등 전국 각지에서 교류 시합을 실현하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야구 연맹에서는 매년 선발팀을 국제 친선을 위해 국외에 파견하고 있고, 작년에는 일본이 뽀빠 교류 시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체제지인 이와테에서는 후지 대학, 모리오카 대학, JR 모리오카, 페즈트 이와테와의 교류 시합 이외에 소년 야구 교실의 개최, 이전부터 마루야마씨와 교류가 있던 카와베 초등학교와의 교류회와 각 연령층과 만날 수 있는 일정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와테현영 야구장에서 아이들과 야구 관계자가 아오다모의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통역은 모리오카대 학생, 교류 시합 등의 사진 촬영은 현립대 학생이 자원 봉사로 참가하는 등, 마음이 가득 담긴 교류가



(좌)부회장 나가야마 요시유키씨 (우)회장

되었습니다. 귀국 후, 오스트레일리안 프로버설팀은 정부나 관계 각처에 보고하여, 그 중 이와테와의 교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다시 한 번 이와테에 가고 싶다.” 라고 희망하고 있는 점을 통해, 성공한 교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의 꿈

「이와테 아오다모를 재배하는 모임」은 설립 2년째인 올해를 기반 강화의 해로 정하여 보다 넓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부회장 나가야마 요시유키씨는 “아오다모의 재배는 야구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대책, 청소년을 위한 환경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활동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 라고 전했습니다. 회장 하라씨는 “모두가 함께 심은 나무가 배트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여,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며 웃는 얼굴로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테 아오다모를 재배하는 모임.

2009년 4월 설립. 아오다모의 묘목을 재배하여, 자원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공헌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야구계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트용 나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장은 하라 오사무씨. 고문은 요시다 요지씨, 테니 마루야마씨.

요트는 우리들의 공통어. 항해의 기술, 환경의 중요함과 뉴질랜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많다.



이사장 하시모토 히사오

요트를 통한 국제교류

미야코시의 NPO법인 「이와테 마린필드」는 청소년의 국제교류 사업으로써 매년 뉴질랜드로 항해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요트 기술, 환경학습, 그리고 풍부한 생활양식과 뉴질랜드의 요트클럽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은 여러가지에 이릅니다.

2003년 「국제 스포츠 지도원」의 요트코치로 뉴질랜드의 대학생, 스튜어트 이네스군이 미야코에 왔던 것이 교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름부터 지도를 시작했지만 일본의 사정에도 익숙해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시즌 오프. 그렇지만 그는 「일본은 이제부터 겨울이지만 뉴질랜드는 여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뉴질랜드에 연수하러 가지 않을래요?」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와테 마린필드 설립 당초부터 국제교류도 활동의 하나로 내걸었기 때문에 「좋아 그럼 해보자!」라고 결심,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 다음 해인 2004년 1월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멤버는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7명이었습니다. 모두 이 고장에서 주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미야코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었으므로 아이들은 모두 그 고장의 요트 클럽 멤버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트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이기 때문에 연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집에 돌아가면 「오늘의 항해는 어땠니?」, 아침에 나갈때 「오늘은 좋은 바람이 불고 있어.」 등 배웅을 통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트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오전 10시정도부터 오후 2시정도까지 바다에 나가서 요트 연수.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스포츠와 등산, 시설 견학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요트의 선진국으로 요트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요트를 통한 환경에 관한 것까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워터 와이즈 프로그램(Water Wise Program)은 자연과 환경, 항해와 기상등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NPO 활동,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수에는 여자 올림픽 선수가 코치로 와주었습니다. 그 당시 참가한 사람은 반이 고등학생으로 그들은 일본에

돌아와서 전국체전과 고교 스포츠대회에서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여러가지 경험들이 그들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현재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로부터 미야코로 연수도 오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지만 올해 미야코에 온 한 분은 월드 유스(World Youth)의 선수로 여기에 오기전 브라질의 대회에 출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돌며 경기를 한 선수가 미야코에 올 수 있게 된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의 연수도 거의 한차례 돌아왔기때문에 이후에는 어른들의 교류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들의 활동의 참고가 되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거나, 비즈니스 교류에까지 넓히고 싶은 희망도 있습니다. 요트클럽의 멤버에는 다양한 직업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미야코에 온 분은 화훼농장주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꽃은 비싸네요. 저의 꽃을 컨테이너로 보낼테니 꽃수입을 해보지 않을래요」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것도 서로 요트 친구로서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모아 다시 NPO활동의 받침으로서 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PO이와테 마린필드

마린 스포츠의 보급을 목표로 각종 교실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한 국제교류사업 이외에 바다 카약교실, 요트와 카약의 출전강좌, 자연환경 보호 활동등을 하고 있다.

검 겨루기를 통해 배우는 사랑

이와테현 토노시와 자매 도시를 맺은 이탈리아 남부의 사레르노시. 자매 도시와 교류를 하던 중, 검도를 지도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으로, 2005년에 토노시 주변의 검사 9명이 파견되어 시읍면 레벨에서는 드문 검도 교류를 했습니다. 지도한 키쿠치 초에츠씨와 키쿠치 가즈히로씨는 참가자들의 열의에 놀랐다고 이야기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검도가 번성해 있지만, 사레르노의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토노 검도회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모아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 이전에 듣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참가자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전 국가대표팀 선수를 포함해 이탈리아 전국으로부터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나라 전체의 선수 지도나 교류에 관해서는 국가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도시로부터 파견된 우리들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실력별로 나누어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도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레르노의 사람들은 검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도, 합기도, 가라테 등 「무도」의 일환으로서 검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복장도 방어구를 차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가라테복, 유도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도의 도구는 현지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갖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도등의 소모품도 일본의 몇 배나 되고, 죽도의 날땀을 고정시키는 고무조차 사레르노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어렵습니다. 검도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평범한 딱딱한 바닥의 농구 코트였기 때문에 기본 걷기 동작만으로도 무릎에 부담이 갔습니다. 연습은 3일간 실시했지만, 끝났을 때에는 몸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자세

참가자들의 실력은 정말로 가지각색이었지만, 일본에서 지도자가 오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지했습니다. 검을 겨루는 것 이외에도 예의를 지키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인보다 훌륭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습 중간중간에 간단한 겨루기를 실시하는데, 보기 드문 광경이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두 진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검도는 번성해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레르노에서는 아직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고, 실력도 높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검도의 형태나 예의 방법 등 표면적인 부분은 익혔을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 능숙해지는



검도 세미나에 이탈리아 국내 각지에서 모였다

가지각색의 참가자. 유도복을 입은 진지한 아이들

것은 어렵습니다. 역시 검도가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습뿐 아니라, 시합을 통해 기술을 몸에 익혀 상대의 움직임에 예측하는 것 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면의 수양은 실력이 있는 지도자가 가르치는 편이 좋지만, 안타깝게도 사레르노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여서, 「무도」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일본인보다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장소나 도구가 갖추어지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장기간 체재를 통한 지도를 할 수 있다면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노시와 이탈리아·사레르노시의 자매 도시 교류

영화 「토노의 이야기」(무라노 테츠타로우 감독, 1982년)가 제35회 사레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받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토노시와 이탈리아·사레르노시의 자매 도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문화 교류를 통하여 친선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자매 도시 체결 25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 사레르노시 방문에서는 다음 해 토노의 이야기 발간 100주년에 관련하여, 토노의 「이야기꾼」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2005년에는 사레르노 측의 요청에 응하여 검도 지도자가 11명 파견되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참가자는 200명에 달했으며, 그 후 이와테에 검도를 배우러 온 분도 있다고 합니다.

위켓(3개의 볼)에 볼이 맞으면 타자가 아웃.
타자는 방어를 위해서 공격한다.



홍보 매니저 딘 무출러씨

이와테의 외국인이 시작한 크리켓 교류

2006년 모리오카에 동북 지방의 첫 크리켓팀이 창설되었습니다. 이와테의 외국인이 창설한 팀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스포츠를 애호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동북 각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크리켓을 그리워하거나 새로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과의 다국적 교류의 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켓은 영국의 국기로 불리는 스포츠로 영국연방에서 통치한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인기가 있으며, 야구와 비슷한 스포츠로써 즐기는 인구는 축구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모리오카에 있는 캐나다 출신의 영어 강사들이 우연히 플라스틱의 야구 배트와 볼을 찾은 것이 “모리오카 크리켓 클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활동한 지 4년 정도 되었지만, 지금까지 19개국(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터키, 중국 등) 50명 이상의 외국인과 일본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가자의 절반은 외국 출신자로, 국제색이 풍부합니다. 참가자 중에는 크리켓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 시합이나 연습 중에는 부드러운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리오카 크리켓 클럽이 창설되기까지 동북 지방에는 일본 크리켓 협회에 등록된 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크리켓팀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본 클럽의 설립의 이야기가 동북 지방에 있는 외국인 등에게 알려져 최근 몇 년 사이에 센다이, 아키타에서도 클럽이 창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도 팀이 창설되는 등 동북 지방 각지에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동북지방 대회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센다이, 아키타에 승리를 거둬, 모리오카 크리켓 클럽이 동북 지방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대회는 전년도 챔피언의 홈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올 해 동북 지방 대회는 모리오카에서 개최됩니다. 좀처럼 볼 기회가 없는 크리켓 경기를 보러 꼭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켓의 보급, 시합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소중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연습이 끝나고 친목을 위한 바베큐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크리켓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축을 통해, 모두가 즐기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참가자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으로서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 전용의 메뉴도 준비하여,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모두에게 크리켓을 알려 교류가 넓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 국적, 성별, 크리켓의 실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리오카 크리켓 클럽은 크리켓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모르는 분 모두를 위한 클럽입니다.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즐기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외국인들과 교류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리오카 크리켓 클럽

동북지방에 크리켓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6년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시즌 중에는 매월 2회 키타카미 공원이나 시슈시다담 야구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moriokacricket.wordpress.com/>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20주년

20 Years



2009년 10월 18일(일), 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가 20주년을 맞이한 날로써,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식전

시간 13:30~14:30
장소 아이나 8층 804 회의실

내빈 분들, 표창 수상자, 국제 교류 관계 단체, 역대의 임직원, 일반 시민분들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는 가운데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설립 20주년 기념 식전을 거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안도 아츠시 이사장이 「본 협회는 지역 레벨의 교류가 요구되고 있었을 때에 호응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현·시초촌(市町村)·기업 등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할 때는 2,000명 정도였던 현 내의 거주 외국인수도 대략 65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필요로 하는 활동도 국제 교류에서 국제 협력, 다문화 공생의 추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선인들의 정신을 가르침의 바탕으로, 현 국제 교류 추진의 핵심 조직으로서 지역에 기인한 국제 교류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여, 인심이 풍부한 향토 이와테 만들기에 이바지해 나갑시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소 타쿠야 이와테현 지사, 이와테현 시장회 타니후지 히로아키 회장, 자치단체 국제화 협회 카야마 미츠히로 이사장으로부터 축사를 받았습니다.

국제 교류·협력·다문화 공생 추진 공로자 표창에서는, 수상자의 활동 풍경이 슬라이드로 소개되면서, 타소 타쿠야 이와테현 지사로부터 지사 감사장이 이시와타 류지씨에게, 그리고 안도 아츠시 본 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이사장 표창장 및 이사장 감사장이 각 수상자에게 건네졌습니다. (수상자는 아래에 게재) 수상자를 대표해 이시와타 류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20년의 역사를 상영 후, 식전은 종료되었습니다.

기념 강연

시간 14:30~16:00
장소 아이나 8층 804 회의실
주제 「음식을 통해 세계가 보인다」

강사 NGO 대지를 지키는 모임 회장 후지타 카즈요씨



후지타 카즈요씨는

이와테현 이사와쵸(현재 오슈시 이사와구)의 벼농사 농가에서 출생. NGO 「대지를 지키는 모임」, 사회적 창업의 시초가 되는 「주식회사 대지(현재 주식회사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설립에 참가하여 유기 농업 운동을 시작해 식량, 환경, 에너지,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지타씨의 강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35년전에 시작한 유기 야채의 판매가 지금은 9만 1천 가구에 택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기 야채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농가가 생산한 상품을 취급하는 방침이지만, 일본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일본의 농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공정 무역」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로 만들거나 가자 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받은 헌 옷을 파키스탄에서 현금화하여 현지 초등학교의 운영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식량 자급율 40%입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한 후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세계의 식량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의 후손이 굶주리지 않도록 꼭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교류회

시간 16:00~17:30
회장 아이나 8층 803 회의실

교류회는 회장을 옮겨서 거행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 중에는 기모나 민족 의상을 입으신 분이 계셔서 교류회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본협회 에스닉 레스토랑 맵 제휴점으로부터 여러 나라의 메뉴도 제공되어 국제색 넘치는 요리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요리중에서는 공정 무역 카레 요리 콘테스트에서 고교생이 고안한 메뉴도 재현되었습니다.

카와무라 미츠로 이와테현정촌회 부회장(야하바초장)에 의한 건배 후, 참가자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이즈마 노리히코 본협회 이사장, 후지이 카즈미 이와테 대학 학장의 스피치에 이어, 조루몽씨가 몽골의 찰현악기 마두금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회장에 올려 퍼지는 몽골의 현 음식에 모두 이야기를 멈추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 카이 나오키 독립 행정법인 국제 협력 기구 토호쿠 지부장에 의한 인사로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설립 20주년 기념식전·기념 강연·교류회에 참가해 주셨던 모든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상자 리스트

이와테현 지사 감사장
石渡 隆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이사장 표창장
田口 絢子
いわて国際理解教育研究会
奥州市国際交流協会
国際ゾンタ 盛岡ゾンタクラブ
日本語交流室「じょい」
盛岡白百合学園高等学校
盛岡中央高等学校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이사장 감사장
(출연 협력 단체등)

石田家
株式会社岩手銀行
株式会社北日本銀行
株式会社東北銀行
株式会社和かな

(찬조 회원)

高田 章
藤村 健三

(사업 협력 단체)

岩手県行政書士会
A.Y.C.L.

日本語教室「いっぽいっぽ」
いわて*多文化子どもの教室むつみっこくらぶ
オーシャンズ宮古国際交流倶楽部
川崎21世紀国際交流クラブ
日本語サポートクラブNIKK
はなまき日本語サポーターズ「ステップ」
ゆうの会

(사업 협력 개인)

山崎 友子
松岡 洋子
千葉 喜秋
大高 久枝
小原 史湖
木村 ゆき子
鷹鷲 洋子
長岡 美和子
林 裕
村井 好子

(역대 임직원)

智田 恵子
軽石 洋子

20 Years

수상자로부터



이와테 지사 감사장

이시와타 류지씨의

주식회사 슈와리소바 사장. 이와테 의대 명예 교수. 모리오카 YMCA 이사장. 이와테현 국제 교류 협회의 설립 준비 위원장, 기획 위원장을 역임. 또한, 이와테 라인 랜드 교류 협회 회장으로서는 독일인 대학생의 일본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1989년 협회가 설립되기 1년 전에 국제교류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연히 저는 위원이 되었고, 선거로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테 의대의 이시와타 연구실을 거점으로 상공 단체나 기업 관계자나 청년 회의소의 분들 등과 협의를 거듭하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 현 내에는 몇몇 민간 레벨인 국제 교류 조직이 있었습니다. 현의 협회로써 그 조직들의 역할 분담이나 의견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장으로서 다소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내의 국제 교류 관계자의 관심을 크게 나눠보면, 서양 선진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사람들과 아시아 발전 도상국 지원에 힘을 기울이는 그룹이 있어서 국제 교류에 향해진 문제 의식이 서로 조금은 잘 맞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목표로 한 것은 개별적인 단체의 활동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냉전 후 새로운 글로벌 사회를 공통으로 한 시점으로 [다른 문화에 관한 상호 이해]와 [인간으로서 공통된 가치관의 확인]을 통하여, 현 내의 많은 사람이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교류의 무대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독일에서 일본의 경제 사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1년간 일본 연수를 의무로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직 [이와테 라인 랜드 교류 협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 내의 많은 기업 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라인랜드=팔츠 주립 산업 경제 대학에서 오는 유럽, 아시아계가 반반인 학생들을 일본인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금은 교류 활동의 실황적인 면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테현의 국제 교류 활동으로 마음을 넓히고 세계로 향해, 세계와 하나로 연결되는 희망의 싹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와테현 국제 교류 협회 이사장 표창장

오슈시 국제교류협회 회장 사토 고

오슈시 국제교류협회에서는 2008년도 이와테현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공생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와테현의 같은 주민으로서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문화 공생을 목표로 행정 기구와 함께 일본어 학습 지원, 정보의 다언어화, 생활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슈시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 신부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어 표기밖에 없거나, 필요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 등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오슈시의 정책으로써 오슈시 국제교류협회에서는 「다문화 공생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슈시가 이러한 정책을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써, 오슈시장을 비롯한 행정 관계자들의 큰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 대책에서도 외국인 2명을 고용하여 안내 표시의 번역이나 팜플렛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생 계획의 일환으로서 마을을 단위로 한 일본어 교실의 개설을 위해 자원 봉사 지도자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은 행정과 제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외국인 신부에게 오슈시 국제 교류 협회로부터 안내가 있어도 가족에게 이상하게 여겨져 참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오슈시의 이름으로 안내를 받으면 참가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각국에서 관측한 정보를 오슈시에 있는 위도관측소에서 수집하여 세계 각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위인도 많이 배출되어, 오슈시민은 위화감이나 차별감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국인이 있는 곳을 알고,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되도록 함께 생각하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 「한발짝 한발짝」

열의를 가지고 일본어 지도

2007년에 설립. 아오야마 스미코씨, 카사미즈카미 교코씨, 키사카 교코씨, 미나미다테 후사코씨, 무라이 테이코씨 5명이 거주 외국인의 일본어를 지도 합니다. 매주 금요일, 모리오카역 서쪽 출구의 아이나에서 활동중 입니다.

모리오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어 교실 「한발짝 한발짝」. 거주 외국인의 올바른 일본어 구사를 목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선생님이 지도 합니다.

우리는 「스키야키」

일본어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터디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이 모여 새로운 일본어 교실 「한발짝 한발짝」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리고, 일본어 지도의 전문가에게 뒤 처지지 않는 열의와 노력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본어 지도에 임하고 있는 「한발짝 한발짝」은, 다른 여러 재료가 모여 맛을 끌어 내는 「스키야키」와 같은 그룹입니다.

교과서의 분석으로 부터 시작된 스터디 그룹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지 의견 교환을 하여, 체계적인 학습내용이나 교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한발짝 한발짝」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학생에 따라서 이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방법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학생으로부터 새로운 의견을 받아, 다음의 학생에게 전달 됩니다.

가르치는 기쁨과 과제

이전에 가르쳤던 방글라데시 분에게 「교토대학 박사과정의 외국인 초빙연구 프로젝트로 일본에 왔습니다」라는 능숙한 일본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발 도상국의 분들 중에는, 일본인이 메이지유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서양 지식을 흡수했던 것처럼의 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기쁨은 일본어 지도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 수료까지 확실히 공부하면 정확한 일본어를 익힐 수 있지만 어느정도 일본어를 익히면 오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서투른 일본어를 들으면 실망감이 듭니다. 특히 일본에 돈을 벌러 온 분들은 직장을 구하면 일을 시작하거나 출산을 해 바빠져서 올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엄마분들은 아이들 유치원으로부터의 편지를 읽거나 엄마들끼리의 교류도 필요하므로 일본어 학습의 요망은 절실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공부할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한발짝 한발짝식 교류

자국 이외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본어 수업시간 사이에 차 마시는 시간을 두어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임신중인 한 분이 출산 경험이 있는 중국분에게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불안하지만, [교실]에 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이사를 하면 근처의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가지만,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도와줄까요?」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미국식이 좋아보입니다. 새롭게 온 분에게는 일본인이 먼저 인사하여 이야기 해 갑니다. 학습자들이 작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서로 거리를 줄여 가고 싶습니다.

일본어의 기초 뿐만이 아니라, 한자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일본어 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해 가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동료들이 늘어나면 기쁩습니다.



왼쪽부터 村井テイチ、木坂京子、青山純子

2010 いわて国際交流

2010 이와테 국제교류



한국어

財団法人 岩手県国際交流協会 /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 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020-0045 岩手県盛岡市盛岡駅西通1-7-1 アイーナ 5F
Aina 5th floor, Morioka Eki Nishi Dori, Morioka, Iwate 020-0045
TEL 019-654-8900 FAX 019-654-8922
E-mail kikanshi@iwate-ia.or.jp URL <http://www.iwate-ia.or.jp>